

# 世界 主要타이어會社의 海外進出動向을 追跡

日本の 타이어메이커에 있어서 輸出은 賣上高의 約三分之一을 占하기 까지 成長했다. 然이나 日本의 輸出은 製品輸出(타이어 單體輸出)이 大部分이며 資本進出一工場進出은 歐美의 타이어메이커에 比해 宏壯히 적다. 그래서 印尼 이란 兩工場을 完成시켜 海外에 4個 工場을 保有한 BS 타이어의 石樽常務에게 앞으로의 海外政策에 對해서 인터뷰하고 이어서 世界의 타이어 메이커의 海外工場進出의 움직임을 追跡해보았다—編集部

## <其 1> 海外工場進出의 條件과 今後의 課題

인터뷰: BS石樽常務에게 듣는다.

問 BS타이어는 印尼, 이란의 兩工場의 操業開始에 依해서 海外工場은 싱가폴, 泰國과 合해서 4個 工場으로 된셈인데 現在 새로이 海外工場을 具體적으로 檢討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答 具體적으로는 없다.

問 4個로 一應 一段落했다고 보아서 좋은지

答 여러가지로 基礎적인 研究調査는 하고 있으나 具體적인 것은 없다.

問 海外工場을 만들 境遇 進出의 條件이란 것이 있다고 生覺한다 BS의 境遇의 條件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答 BS의 海外工場進出의 경우의 條件은 第1로 資本比率 第2로 日常적인 經營權을 가질 것, 第3으로 BS브렌드의 타이어를 만들 것, 이 3個가 基本的인 條件이다.

第1의 資本比率에 對해서 當然 日常적인 經營權을 가질 수 있는 點으로 보아서 50% 以上の 株를 가지고 싶은 點이다.

問 石樽常務는 日本의 타이어 메이커— 이것은 타이어메이커에 限 한 것은 아니나 一가 海外에 工場을 만들 境遇 歐美의 타이어메이커에 比해 큰 핸디를 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歐美의 타이어

메이커는 戰前부터 世界中에 工場進出을 하고 있다.

如斯한 歐美의 타이어메이커의 工場이 있는 나라에 後進 해서 가지 않으면 안되는 日本의 타이어 메이커는 큰 핸디를 持하지 못한다.

이 핸디를 可及의 줄이기 爲해서 恩典—例를 들면 免稅措置와 같은 것—이 있는 것도 海外 工場進出의 하나의 條件이기는 하다고 말한 바가 있다. 이 點은 어떠한가

答 恩典이 있는 것은 當然 바람직 한바이나—그리고 開途國에선 恩典이 여러가지로 생각될 수 있으나—先進國에의 進出의 경우 恩典은 생각될 수 없다. 故로 海外工場進出의 경우의 一般的인 條件이라곤 할 수 없다

問 開發途上國의 恩典措置와 BS의 海外工場이 開途國만에 進出하고 있는 것과는 關係가 있는가

答 지금까지는 開途國에서 確實히 多少의 恩典措置를 받고 있다.

然이나 將來는 開途國 뿐아니라 先進國에도 進出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때문에 先進國은 何等의 恩典도 없으며 現地의 工場도 있으므로 先進國에 進出할 경우 스쿠라치(對等)로 充分히 競爭해 나갈 정도의 綜合적인 힘 없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問 印尼工場과 이란工場의 展望을 들고 싶은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答 印尼에 對해서 大體로 3年 以內에 페이라인에 設혀서 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問 印尼라고 하던 進出되어 있는 工場은 GY...

答 GY와 國營工場뿐이다.

問 그러던 마켓트 規模로써서 工場이 적었던 셈 이군

答 적었다고 할 수 있다.

問 이란 工場은 如何. 이란은 어렵지 않나들 하고 있는데

答 이란은 어려운 要素가 數個있다. 그하나에 지금 이란에선 物價統制令이 發해지고 있다.

任意로 價格을 決定해서는 안되지. 타이어를 팔 境遇에도 政府가 價格을 指導하고 있다. 그것과 이란 工場의 規模는 印尼工場의 2倍 가량 있으므로 그만큼 리스크(危險度)는 크다고 할 수 있다.

問 印尼도 이란도 生産타이어는 트럭 버스타이어가 主가되는 셈이군

答 그렇다. 그저 이란의 T.B 타이어는 1200-24의 사이즈가 主이므로 日本의 主(1000-20) 보다大型으로 된다.

한편 印尼는 750-20과 825-20이 主이므로 T.B 타이어로도 작은 사이즈가 中心으로된다.

## 印尼工場 보다 이란 工場이 어렵다

問 最近 兪 릿치社가 이란 工場을 손 댄것은 이 物價統制令과 關係가 있는가

答 하나로는 兪 릿치는 赤字계속이었다는 背景이 있다. 그것과 株式의 이란化(P.31의 註參照)의 움직임이 있어서 操業後 5年以上 經過한 外國企業은 3年以內에 持株를 25% 以內로 減라 라고 하는政令(?)을 냈다.

이러한 것이 重疊되어서 兪 릿치는 이란 工場을 撤收했다고 본다.

問 그렇다면 BS도 5年 經過後에 25%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셈 이군

答 그렇다.

問 이란에는 또 하나 제너랄이 工場을 갖고 있군 제너랄도 持株를 25%로 制限當한 셈이군

答 그렇다.

問 그렇게되면 今後 BS의 이란이 25%의 資本比率로 되었을 경우. 前般의 工場 進出의 基本的 政策의 50% 以上の 資本比率이라고 하는 것과 對立을 하는데—

答 이것은 이란에 工場을 進出 하는 段階에선 50% (商社의 5%의 持株를 包含하여서)의 資本比率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進出한셈이다. 그러나 나가서 操業을 開始한 後부터 如斯한 決定이된셈이기 때문에 이젠 어떻게 할 수도 없다. 然이나 今後進出할 경우는 亦是50%

以上の 資本比率이라고 하는 것은 基本으로되지

問 그러나 今後 開途國에 있어도 이란과 같은 경우가 增加하여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 點에 對해선 如何히 생각하시는지

答 今後 開途國에 進出할 경우 可及的 그러한 制限이 없는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만큼 開途國에 進出하는데도 나라의 選擇이 어렵게 된다고 생각 한다.

問 印尼工場 이란工場의 兩工場이 操業開始한셈이나 이란은 日本으로부터의 最大의 타이어輸出國 印尼도 큰 輸出比率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든셈이나 現地工場과 日本으로부터의 輸出의 關係는 如何히 되는 것인지

答 그것은 現地の 工場을 成立시키기 爲해서 日本으로부터의 輸出을 抑制 하게된다. 이것은 모든 경우의 基本 政策이다.

現在 BS는 昨年の 下半期부터 印尼와 이란계의 輸出을 줄이고 있다.

問 新嘉坡工場과 泰國의 工場에 對해서 계속해서들고자한다. 싱가포르와 타이의 業績은 如何

答 싱가포르, 타이共히 順調 롭다. 싱가포르는 操業開始後 11년에 이르나 配當에 依해서 投下資本의 回收는 되었다. 比較的 順調롭다고 해서 可할듯하다.

泰國도 操業後 7年을 경과 했으나 配當에서 投下資本은 回收되고 있다.

問 그래서 世界의 主要타이어메이커의 海外工場 進出의 움직임인데 近來 5~6年間に 兪 릿치社가 굉장히 積極的으로 海外—歐洲地域以外—에 進出하고 있으나 이原因은 亦是 世界的인 스틸라디알化的 傾向속에서 兪 릿치社의 스틸라디알 技術이 “秘方”으로 되어있기 때문인지

答 그렇다. 兪 릿치社가 스틸라디알 이라고하는 “秘方”을 갖고 있음이 第一의 原因이나 그것과 歐洲에의 進出은 이미 거의 完了해버렸다. 歐洲全體로는 相當한 세어를 確保했다. 그래서 캐나다, 美國, 最近에는 이지프트에 進出이라고 하는 뉴우스가 흘러 話題를 부리고 있으나 積極的으로 進出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中近東市場을 圍繞하고 激化하는 日本勢對 兪 릿치

問 兪 릿치社는 EC諸國에서 50% 以上の 세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좋은지, 왜냐 하면 主要타이어 메이커의 工場數를 調査했든바 (P.32 參照) 英國에선 덴트프와 伊太利에서도 피렐리와 同數의 工場을 갖고 있다. 西獨에선 콘티넨탈보다도 많다. 또한 佛蘭西 本國

의세어도 70%以上은아닌가 하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點으로부터 따져보면 EC全體로 50% 程度는 된다  
고推定되는데——

答 明確한세어에 對해선 알 수 없겠으나 資本進  
출되어있는 나라에선 틀은아니라도 No.2로는 되어있  
다른가 宏壯히 上位에 랭크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  
點으로부터 보아도 EC全體로 相當한세어를 갖고 있음  
은推定할 수가 있다.

問 그릿슈탄이 드디어 이지프트에 進出한다는 소  
리가 들린다. 北阿에는 이미 알제리아에 工場을 갖고  
있는셈인데 이깃슈탄社의 이지프트 進出은 中近東을  
거냥하고서의 進出이라고 받아들여서 좋을는지

答 그렇다고 생각한다 나亦是新聞報道밖에 모  
르지만 이지프트에서 만든 타이어의 60%를 輸出할  
것이進出條件이라고 보도되고 있군.

故로 이지프트의 마아켓트만을 相對로 깃슈탄은  
이지프트에 進出하는 것은 아니다——였겠지

問 알제리아의 工場은 如何

答 이것은 古工場이다. 오히려 알제리아의 工場  
은縮少의 方向으로 끌고갔다.

問 그렇게되면 中近東의 市場을 위요하고서 日本  
製의 타이어와 깃슈탄의 타이어가 競合하게 되는 셈  
인데

答 그렇게되는데 中近東의 輸入 타이어에 있어  
서 日本製타이어의 세어라고하면 70%가량 있는것은  
아닌지 깃슈탄은 中近東에는 옛부터 들어와 있는  
곳도 있으나 그저 中近東全體의 세어라고 하는  
것은 日本品만큼 높지가 않다.

然이나 亦是깃슈탄이 埃及에 工場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威脅이지 特히 깃슈탄은 스틸라디알타  
이어로도 乘用車용 타이어보다 트럭버스타이어의  
쪽이 강하다.

歐洲에서도 트럭의 스틸라디알은 壓倒의 強  
도를 갖고 있다. 乘用車용 타이어의 경우는 他의  
歐洲의 메이커도 깃슈탄과 거의 同等의 것이된다.  
最近에와서는,

中近東은 트럭輸送이 主力이고 또 길도  
좋아졌으므로 깃슈탄은 이지프트에 工場을  
만들어서 中近東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問 깃슈탄은 美國에도 積極의 工場進出하고  
있군 이미 캐나다에 2工場, 美國에 2工場을  
가지며 또다시 2工場을 建設할 豫定이라고  
하는 뉴스가 들리고 있는데——

答 美國에 歐洲의 메이커가 進出하고  
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는 것은 美國은 가장  
큰 市場이기 때문이지. 그런만큼 포텐  
셜리티(市場의 將來性)가 있다. 거기에  
다가 現時點에선 아직 美國의 메이커  
가 毆美의 乘用車용 타이어로는 前  
進하고있다. 歐洲에선 이미 큰 세  
어의 伸長이 期待되고 美國은 가  
장 큰 市場이라고 하면 美國에 進  
出하는 것은 必然的

인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問 한편 美國의 메이커는 한때 歐洲에  
積極의 進出했으나 最近은 撤退기  
미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 原因은  
勞動條件이 안맞고 生産性이 낮  
기 때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나  
더욱 根本에는 스틸라디알로 歐  
洲勢에 敵手가 안되었다라고 하  
는 것은 없었는지

答 基本的으로는 進出했으나 別로  
안벌이므로 撤退를 考慮하고 있  
다는 것이겠지

타이어産業뿐아니라 歐美의 메이커  
라는 것은 利益이 안나는 部門  
으로부터의 撤退라고 하는것은 比  
較的으로 빠르다고 생각한다. 그  
것과 또하나는 政治情勢——勞  
動情勢도 其中에 보태어서 可  
할듯 생각하나——를 考慮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때문에 工場進出을 해도 別로  
利益이 안나온다. 그런點으로써  
撤退를 考慮하고 있는 것은 아  
닌지모르겠다. 然이나 타이어  
메이커는 아직 撤退하고 있지  
않다. 美國의 他의 産業의 企  
業은 撤退하더라도, 그러므로  
타이어메이커가 撤退를 考慮  
中이라고 하는 뉴스가 흘러도  
칠수했다고 하는 일은 거의 없  
는 것은 아닌지

## 海外工場進出의 條件은 漸漸 嚴해진다

問 그래서 以前 常務는 日本의  
타이어 메이커——타이어메이커에  
局限되지 않음——가 海外에 進  
출한다고해도 歐美의 메이커에  
比해 欸체로 海外進出하기 어  
려운 體質을 갖고 있다고 말하  
마 있다. 그 理由의 하나로서 歐  
美的타이어메이커가 같으면 美  
國 歐洲라고 하는 것 처럼 本國  
地域의 母胎가 크므로 이것을  
발판으로 海外進出을 企圖할  
수가 있다. 이에 對해서 日本의  
경우 母胎가 작으므로 海外  
進出이라고 하는 것은 欸체로  
하기 어렵다고 한바 있는데——

答 그것은 欸活用法이 다른  
것이아닌지 모르겠다. 日本의  
타이어메이커——日本의 企  
業全般이라고 해도 좋으나——  
가 海外進出이 적었는 것은 日  
本國內의 經濟成長이 攄장히  
高度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日本의 市場이 작으므로  
進出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고  
日本의 市場의 經濟成長의 攄  
치가 빨랐다. 그러니 海外에  
投資하기 보다는 國內에 投資  
하는 쪽이 有利하지 美國의  
타이어메이커가 海外進出한  
歷史를 調査해보면 美國國內  
의 成長率이 鈍化 했을때이다.  
그러므로 日本의 企業이 海外  
進出이 늦은 것은 世界에 드  
물게 보는 高度成長을 계속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되는군.

問 그렇게 되면 日本의 경우 美國의 타이어 메이커의 예에 따라서 國內의 經濟成長이 鈍化하므로 海外에의 工場 進出이 強化되는지 不然이면 亦是어려운지

答 어렵지. 왜냐하면 條件이 漸漸嚴해져오고 있다. 全然工場이 없는 國家에 進出할 경우는 恩典이다. 然이나 이미 工場이 있는 地域에 進出하는 경우는 恩典은 적다. 恩典이 없는 곳에 進出한다고 하면 스쿠릿치로 競爭될 만한 綜合力이 없으면 좁게로 利益이 없다 또한 機械등의 價格도 올라가 있으므로 그만큼 投資額도 커져오고 있다. 故로 어느 정도의 展望이 안서고선 進出이 不可能하다. 거기에 開途國일 경우는 100%外資라는것은 認定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現地資本과의 조인트 벤처야(合併)로 된다. 現地資本家は 日本의 企業家보다도 資本의 回收에 對해서는 빨리 回收되기를 바란다. 또한 現地の 資本家は 資本家라하더라도 日本에 比較하면 資本도 적다. 이런 일이 있으므로 工場을 만들려고 해도 조인트벤처의 파트너너로 되어 줄만큼의 資本家を 發見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 故로 今後의 海外 工場進出도 어렵다고 生覺한다.

問 그렇게 되면 日本의 타이어 메이커의 海外政策을 말할 것 같으면 BS의 경우는 4個의 海外工場을 살려가면서 依然히 日本으로부터의 輸出이 主體로 되는 셈이 군.

答 BS의 海外活動에 對해서는 資本 進출로도 製品 輸出로도 어느쪽이라도 無關한데 窮極의으로 世界에 있어서의 BS의 브랜드, BS의 세어를增加시켜 가자고 하는 것이 海外事業에 있어서의 政策이다.

이 경우 資本進出과 製品輸出의 2個의 方法이 있는데 製品輸出이 限界點에 達해 있는 것과 같은 곳에는 資本進出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하나는 事業이므로 基本的으로는 利益을 올릴 것 利益이 없으면 工場 進出하려고 해도 파트너너 조차 發見이 안된다.

그래서 製品輸出이 막히고 있는데다가 資本進출을 안 한다고 하면—— 世界의 他의 大메이커는 하고 있으므로—— 世界的으로 본 경우 그 만큼 BS의 세어는 줄어드는 것으로 되겠지.

그러므로 方法은 資本進出과 製品輸出의 2個가 있으며 어느쪽이든 關係가 없으며 今後도 資本進出과 製品輸出과를 併行 해서 생각 하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BS의 海外工場도 4個로서 끝났다고 하는것은 아니다.

지금으로서는 印尼 이란 이라고 하는 2個의 大工場이 가동 하기시작했을 뿐이므로 다음의 具體的인 工場計劃은 없다는 것이다.

## 綜合力이 없으면 先進國에의 進出은 不可能

問 그래서 BS는 한때 美國에 工場을 進出하려고다가 中止했다. 開途國뿐아니라 先進國에 進出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開途國에 進出條件은 이렇고 先進國의 경우는 이렇다하는 條件의 相違는 있는지

答 아니다. 基本條件은 같다. 오히려 先進國의 쪽이 BS의 基本條件에는 合致한다.

問 石井專務는 海外進出하는 경우 特히 開途國 일 것 같으면 政變이라든가 經濟異變이란 것은 바라다니기 마련이다. 그것을 覺悟하지 않으면 工場進出은 안된다고 한 바가 있다. 이 경우 리스크의 計算 이란 것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어느 정도의 리스크이면 進出이 可能이라고 하는 計算은 있는지

答 計算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5년뒤 6년뒤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있어도 利益의 展望이 서면 한다. 이것은 計算이란 것도 있으나 最後는 決意이다.

리스크가 없는나라는 없다. 100% 安全이 保障안되면 안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海外進出이 안되고 만다.

世界의 他의 메이커는 나가 있으니까 그 反面 如何히 리스크가 적은 나라에 進出하느냐 하는 스타디는 언제나 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問 例를들면 밋슈란이 世界속에 進出이 可能한 것은 他의 메이커에 比하여 리스크가 적으므로, 或은 스틸라더알 이라고 하는 強力한 武器가 있으므로 進出이 可能하다. 그렇다던 BS에도 他社일 것 같으면 50의 리스크가 있으나 BS 일 것 같으면 그것을 40으로 할 수 있다. 故로 進出可能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先進國에는 進出不可能이 아닌지,

答 밋슈란의 경우 先進國에의 進出이 많은 것 같다. 故로 政治的인 意味에서의 리스크는 그다지 없다. 그리고 밋슈란은 BS 以上으로 매조리티(多數) 主義이다. 밋슈란이 進出하고 있는 곳은 밋슈란이 經營權을 가지고 經營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先進國이 많아진다. 그러면 何故로 BS가 先進國에 못가아가 하면 先般부터 말하고 있는 綜合力의 問題도 있으나 于先知名度의 問題가 있다.

例를들면 美國에 進出 할 경우를 想定하면 美國의 勞動者를 雇用, 賃金은 美國의 메이커에 比하여 大體로 같다. 原材料는 使用量이 적다고 해서 메이커에

커어보다 높아진다. 그렇게 하면 賣上價가 어느 程度 높지 않으면 마아진이 떨어질지.

밋슈란의 경우 美國의 수입타이어 中에는 세어가 가장 높으며 知名度도 높다.

마아켓트프라이스도 相當히 높다. 마아켓트프라이스가 높아도 밋슈란의 스틸타이어알은 팔린다. 높은 값으로 팔리므로 해나갈수 있다. 그래서 美國에도 進출이 되는 셈이다.

故로 先進國에 進출할 경우는 于先製品輸出을 해서 브랜드의 知名度를 높여서 브랜드 價格도 通할 수 있게끔 해두는 것이 先決問題라고 생각한다.

問 BS의 경우는 모두 거기까지 條件이 成熟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

答 그것이 結局 會社의 綜合力이란 것으로 된다.

(註) 이란 政府는 今春 이란에 있어서의 大企業 320社에 對해서 株式의 이란化, 大衆化에 關한 命을 냈다. 이 命의 內容은 ① 資本金이 4億4千萬圓以上인 가. ② 固定 資産이 8億8千萬圓以上인 가. ③ 年間の 賣上이 11億圓以上——의 企業에 對해서 株式의 公開와 放出을 命한 것.

그리고 이들 320社는 3그룹으로 나누어져서 106個社는 1976年 3月까지에 108社는 1977年 3月까지에 남여지의 106社는 1978年 3月까지에 持株의 一部의 放出을 開始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3그룹의 第一의 그룹에 굴릿치와 제너탈의 兩타이어 메이커어도 포함되어 있다.

또 새로운 會社는 操業 5年경과後 株式의 49%를 放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타이어의 경우 外資系의 會社의 持株는 25%까지로 規制되었다.

이 때문에 굴릿치도 제너탈도 25%까지 밖에 株式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또한 BS도 5年경과 後에 持株가 25%로 制限된다.

## <其 2> 積極的으로 工場進 출을 繼續하는 밋슈란

解 說 ————— 編 輯 部

### EC의 過半數의 세어確保?

世界의 主要타이어 메이커어의 타이어工場數는 昨年

末로 表 2와 같이 230工場이다.

이 230中에는 BS타이어의 國內타이어 8工場과 콘티넨탈社의 本國의 2工場은 不包含되어 있다.

또 유니로亞社, 밋슈란社에 對해서는 確認된 數字는 아니고 제너럴社의 海外工場에 對해서는 타이어工場의 것인지, 他的 製品工場의 것인지 確實치가 않다.

한편 굴릿치社의 타이어 海外工場은 株를 50%以上 保有하고 있는 工場만을 取扱했다.

그러므로 이 230工場이라고 하는 數字에는 多少의 프라스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나 大體의인 數字로서 世界의 타이어, 고무메이커어 빅 10의 타이어工場과 BS의 國內工場을 加하면 240工場前後로 보아도 틀림은 없을 것 같다.

이것을 5年前의 數字——이 調査數字도 타이어工場의 것인지 非타이어工場도 包含되어 있는 것인지 不明確한 點등이 있다——와 比較하면 約 30工場 增加되어 있다. 메이커어별로 보면 밋슈란의 積極的인 工場進출이 눈에 된다.

밋슈란社의 工場數에 對해서는 同社의 經營 그 自體가 秘密主義를 取하고 있기 때문에 外部의 調査數字 밖에 없으나 確實한 調査數字로서 佛蘭西에 10工場, 스페인에 4工場, 西獨에 4工場, 伊太리에 3工場, 白耳義에 1工場, 和蘭에 1工場, 英國에 3工場, 아이루랜드에 2工場, 알제리아에 1工場, 나이지리아에 1工場, 캐나다에 2工場, 美國에 2工場, 타이어工場을 保有하고 있다고 한다.

同社의 1970年 時點에서의 타이어 工場數는 11이었으나(圖 1參照) 이 數字도 同様の 理由로 確實性은 稀薄하다.

그러나 近者 5~6年の 사이에 世界의 主要 타이어메이커어에서 海外工場進출에 가장 積極的인 것은 同社인 것은 틀림이 없는 事實이다.

如斯히 밋슈란社가 積極的으로 海外에 進출이 可能한 것은 스틸타이어알타이어라고 하는 強力한 “秘方”을 갖고 있음으로써이지 만 것이 아니다.

메이커는 多少 옛것이지만 1972年 時點의 EC諸國에 있어서의 타이어 生産세어는 表 1과 같다.

本國에선 70%의 세어, 그 以外에서도 宏壯히 높은 세어를 갖고 있다.

또한 72年以降도 밋슈란社의 積極的 姿勢가 눈에 띄며 西獨에선 콘티넨탈社를 伊太리에선 피렐리社를 追越한 것은 아닌가라고도 傳해지고 있다.

그리고 最近에선 美國市場을 겨냥해서 캐나다에 2工場 美國에 2工場을 建設하고 또 다시 2工場을 建設할 豫定이라고 한다.

또 中近東市場을 겨냥하고 이집트에도 工場을 計劃하고 있다고 하는 뉴우스도 듯기고 있다.

同社は世界的인 省에너지, 低燃費의 傾向속에서 스틸라디알을 武器로 今後도 積極的으로 海外進出의 姿勢를 維持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美國의 타이어 메이커는 海外進出을 續行하고 있는 GY, FS의 2社와 停滯乃至撤退氣味인 유니로알, 굳렷치, 제너랄의 3社의 2個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貌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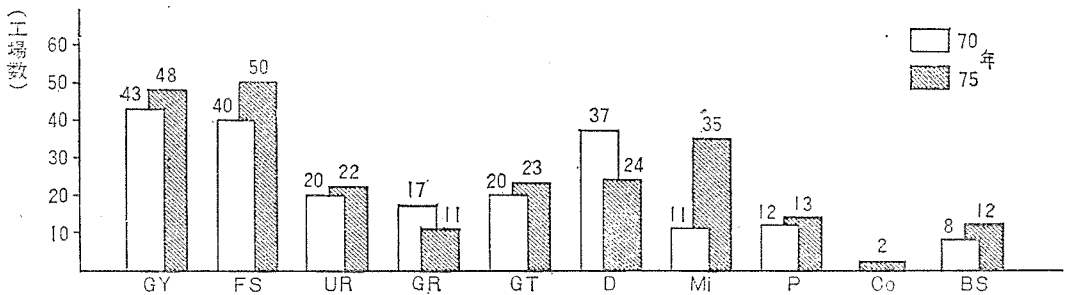
如斯히 差가 생긴 것은 하나에는 60年代 後半으로부터 70年代에 걸쳐서 굳렷치社처럼 타이어 메이커로부터 綜合的인 化學 메이커로의 脫皮를 企圖했든 메이커와 파이어스톤社처럼 굳게 타이어 部門을 固守한 메이커의 差가 타이어 工場數의 差로서 確然하게

나타난 것으로 推測된다.

表 1. 밋슈란社의 타이어 生産세어

佛 蘭 西	英 國
밋슈란 72(%)	던로프 37(%)
던로프 15(%)	밋슈란 21(%)
GY.FS 6(%)	GY.FS 30(%)
西 獨	伊 太 利
큰 티 28(%)	피렐리 34(%)
밋슈란 20(%)	밋 슈 란 30(%)
GY.FS 19(%)	GY.FS 20(%)
	(1972年의 推定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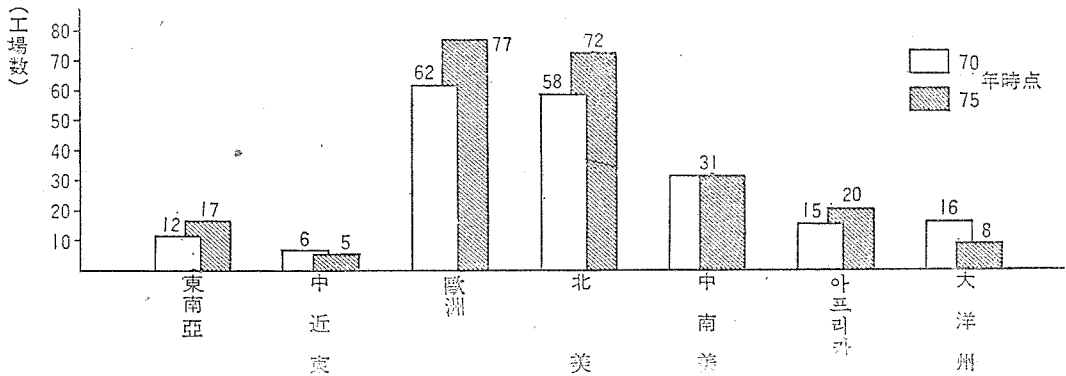
圖 1. 世界の 主要 타이어 메이커의 타이어工場數(本國을 包含)



GY=굳이어, FS=파이어스톤, UR=유니로알, GR=굳렷치, GT=제너럴, D=던로프, Mi=밋슈란, P=피렐리, CO=큰티넨탈, BS=브린지스톤.

70年의 調査에는 타이어工場 以外도 포함되어 있다. 또 밋슈란社에 對해서는 70年調査에선 거의 不明.

圖 2. 主要타이어 메이커 地域別 工場數



東南亞에는 日本은 不包含임.

表 2. 世界の 主要 타이어 메이커의 海外 타이어工場數(本國을 包含)

國 名	GY	FS	UR	GR	GT	D	Mi	P	計	<BS>
▷ 東 南 亞 洲									1	
臺 灣	1								1	
比 律 賓	1	1		1					3	
印 尼 國	1								2	<1>
泰 國	1	1							3	<1>

馬 印 과 新	키 스 嘉 計	來 度 탄 坡	1 1 6	1 3				1 2 3			2 4 1 1 17	<1> <3>
▷中 이 士	近 東 地 域 耳 計	地 域 其	1 1		1 1		1 1			?	2 3 5	<1> <1>
▷歐 瑞 諾 瑞 西 독 白 和 佛 英 葡 스 伊 그 아	洲 地 域 威 西 獨 크 부 耳 義 蘭 西 國 牙 인 利 스 드 이 루 計	地 域 典 威 西 獨 크 義 蘭 西 國 牙 인 利 스 드	1 2 1 1 2 1 1 1 1 1 9	2 *1 1 1 1 1 1 *2 1 1 11		1 1 1 1 1 2 2	1 1 1 1 1 1 2 2			4 1 1 10 4 4 5 1 10	1 1 11 1 2 16 16 7 11 77	
▷北 美 카 나 計	美 地 域 國 다 計	地 域 國 다	16 2 18	15 5 20	12 2 14	5 1 6	6 1 7	2 1 3	2(2) 2 4(2)		58(2) 14 72(2)	
▷中 멕시코 과 아 아 브 클 페 우 베 자 코 토	南 美 地 域 시 태 마 아 루 헨 라 비 루 파 베 주 마 스 리 計	地 域 코 라 들 나 질 아 우 이 라 카 리 카 드	1 1 1 2 1 1 1 1 1 1 9	*2 1 1 2 1 *1 1 1 1 1 9	(1)		2 1(1) 1 1 1 1 1 1 1 1 6(1)			(1) 1(1)	5(1) 3(1) 1 4 6(2) 3 1 1 4 1 1 1 31(4)	
▷아 이 알 튜 나 케	프 리 카 지 리 니 제 니 計	地 域 트 아 아 아 아		1 1					(1) 1		(1) 1 1 1 1	





할 수 있겠다.

今後의 海外工場進出에 對해서도 BS의 石樽常務와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더욱 더욱 어려운 것」 같다.

그것은 世界的 有力한 타이어 마켓트에 있어서 이미 大部分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타이어 工場이 없는 地域은 없을 정도로 타이어 工場이 散在해 있기 때문이다.

至今까지 BS가 進出한 海外工場은 全部開途國에서 또한 先發타이어 工場이 적은 나라다. 如斯히 開途國에 進出한 큰 要因으로서 一種의 特惠가 있었음을 들 수 있다.

免稅措置와 같은 特惠의 後援이 있었으므로 例示하던 泰國 BS와 같은 것이 2年 앞서 進出한 FS社와 어깨를 겨룰 정도로 成長된 一因으로도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然이나 이미 如斯한 恩惠를 입을 수가 있는 나라는 적어지고 「開途國에의 進出이라고 해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石樽常務는 말하는 셈이다.

한편 先進國에의 工場進出에 對해서는 「綜合力이 없으면 進출할 수 없다」고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다. 이 경우 '綜合力' 中에서 가장 웨이트를 占하는 것은

#### <13p 에서 계속>

對해서 抑制劑가 明白하게 影響을 끼침이 確認되었다. IR단의 酸化에 있어서의  $V_{max}$ 는  $6.5mlO_2/min$ 의 値가 測定되었다. 一定量의 抑制劑를 加하면 그 値는 顯著하게 低下한다. 例를 들면 DNP의 添加로  $V_{max}$ 는 2, 4, NO-nox DPPD에서 3, 9, Bisphenol nonox WSP였다.  $V_{max}$ 의 低下와 酸素吸收抑制作用의 延長과의 사이에는 關

#### <20p 에서 계속>

引裂強度 (kg/cm)	20	63	71	76
摩耗量 ml/1,000回	25	0.68	0.58	0.17
反撥彈性 (%)	25	55	58	51

## 6. 끝

廢타이어 處理에 對해서는 環境整備上 極히 重要な 것이다. 從來와 같은 埋立소각은 長期的으로 보면 解決의 手段으로는 안된다. 이것을 資源問題와도 結付하여서 廢타이어를 資源으로서 再利用할 것을 생각했다. 再利用方法으로서 熱分解에 依한 生成物의 用途의 長期安定化를 期하기 爲해 고무業界에의 리사이클 하는 方式을 採擇했다. 然이나 如斯한 企劃은 回收問題 技術問題 經濟問題 其他에 많은 困難이 있다. 따라서 關聯業界의 理解와 協力없이 는 實施할 수 없다. 長期에 互한 今

'技術力'일 것이다 라고 推測된다.

깃슈란社가 歐洲를 席卷하고 美國에 손을 펼친 것도 一또한 이 4~5年의 사이에 캐나다에 2工場, 美國에는 計劃中인 것을 包含하면 4工場이나 一스틸라디알 타이어라고 하는 "秘方"이 있었음에 不過하다.

日本의 타이어 메이커어의 技術者는 「이미 우리의 스틸라디알타이어는 깃슈란에 안집니다」라고 自信하던 서 말하고 있지만 輸出擔當者의 見解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깃슈란과 同程度의 性能일 것 같으면 外國에선 當然, 使用者의 많은 分은 깃슈란을 산다.」

技術적으로 깃슈란을 壓倒할 수가 있고서 비로소 外國에선 營業面에서도 깃슈란과 同等으로 競爭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便이 좋다」고 아마도 깃슈란社처럼 技術인인 "秘方"이 있고서 비로소 積極적으로 先進國에의 進出이 이룩될 것 같다.

그때까지는 亦是 日本으로서는 製品輸出이 主力으로 되는 것은 아닌지.

假使 現在의 力量으로 先進國에 海外工場進出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落穂줍는 것 같은 그러한 工場進出에 끌리고마는 것은 아닐지?

(1976. 7 日本 月刊타이어誌)

係가 있음은 알 수 있다. 潛伏期가 넘으면 抑制劑는 消費되어 水素의 轉移도 이미 可能性이 없는 것으로 思料된다.  $V_{max}$ 의 低下의 原因으로서 는 抑制劑의 反應過程에서 생기는 生成物이 또한 어느 정도의 抑制作用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76年 第18卷 第1號 日本合成 고무誌)

後의 指導편달을 바란다. (日本고무協會 關西支部 例會講演 1975年 7月)

## 參考文獻

- 1) 平田 好顯: 日고무協誌, 46, 973 (1973)
- 2) 中西 英治, 豊立 勝二: 粉粹, 18, 94(1973); 木村 峻泰: 環境創造, 5, 41(1974)
- 3) T. Okita: Full Text of International Rubber Conference p. 355(1975) 日本고무協會
- 4) R.H. Walk: Rubber Age (N.Y.) 106, No. 6, 27 (1974)  
荒木 富安: 有機合成化學, 33, 342(1975) 佐伯 康治: 高分子, 24, 775(1975)
- 5) F. Zepichal: Gummi Asbest Kunst., 7, 566(1973).

(1976. 7 日本고무協會誌에서)